

한국 신화에 나타난 바다의 의미

오세정*

〈차 례〉

1. 서론
2. 지상세계의 대칭적 타계로서의 바다
3. 선진 문화 수용 경로로서의 바다
4. 죽음과 재생의 공간으로서의 바다
5. 결론

〈국문초록〉

신화는 공간이 주요하게 기능하는 서사이다. 인물의 자질이나 능력, 행위의 방향과 결과 등이 모두 공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서사 전개 역시 철저히 공간적으로 형성되며, 주인공들의 공간 이동 과정에서 이야기의 핵심 가치와 이념이 형상화된다. 한국 신화에서 신화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계는 하늘이다. 신성함의 출처이자 지상의 인간이 모방해야 할 대상인 하늘은 인간 존재의 수직축 방향의 위쪽에 위치한다. 지상의 인간의 수평축 방향에 있는 바다 역시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는 신화적 공간이다.

이 바다세계를 하늘과 인간세계와의 관계처럼 단선적인 '성(聖) : 속(俗)'의 대립체계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인간세계와 구별되는 신이한 세계 내지 신물과 이인이 존재하는 세계로 볼 수 있다. <송당본풀이>나 <심청무가>에 나타나는 용궁을 통해 바다세계의 신이성이 잘 드러난다. 또한 바다는 세계를 구획하는 경계공간이 되거나, 인간과 문화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매개공간이 되기도 한다. <가락국신화>와 <삼성신화>에 등장하는 신성한 존재의 배우자들을 통해서 그 같은 바다의 의미가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바다는 죽음과 추방을 의미하기도 하며 동시에 재생과 부활의 상징적 공간이 되기도 한다. <탈해신화>나 <송당본풀이>, <칠성

*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본풀이>, <심청무가>의 주인공들은 바다로 이동함으로써 기존의 삶이 부정되고 죽음을 맞지만 동시에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주제어 신화, 바다, 신화적 공간, 용궁, 문화 교류, 죽음과 재생

1. 서론

신화는 인간이 던진 근원적인 물음, 예컨대 존재의 근거 이유나, 현존 너머 존재하는 본질에 대한 물음 등에 답하기 위해 신 내지 초월적 존재를 드러낸다. 이 점에서 신화는 ‘만유의 존재론이 되고 인간의 첫 형이상학’¹⁾이 될 수 있다. 이 형이상학은 불가시(不可視)적 현실을 가시적 현상으로 표현한다.²⁾ 신화 연구는 바로 이 점, 즉 신이나 신적인 존재, 혹은 현실의 근거가 되지만 결코 현실적이지 않는 현상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 불가시적 현실을 드러내는 언술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의미를 형성하는지 살피는 작업이다.

신화는 이야기 양식이며, 이 서사는 나름의 독특한 방식으로 의미를 구조화하여 드러낸다. 요컨대 서사는 행위자, 행위자의 행위, 그리고 행위가 진행되는 시공간으로 이루어지며, 이야기 속에서 이 요소들이 결합되어 의미체계가 구축된다. 그런데 한국 신화는 다른 서사 갈래에 비해서 특히 공간의 의미가 중요하며 서사 내 의미 생성에 있어서도 그 기능이 두드러진다.

1) 김열규, 『한국인의 신화-저 너머, 저 속, 저 심연으로』, 일조각, 2005, 197면.

2) J. Schniewind in H. W. Bartsch, 'Kerygma and Myth: a Theological Debate', S.P.C.K, 1953, p.47.

에드문드 리치, 『신화로서의 창세기』, 구본인 역, 파란나라, 1995, 1면에서 재인용.

신화의 주인공들은 존재론적 변신을 꾀하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왕이 아닌 자에서 왕으로, 신이 아닌 자에서 신으로 변신한다.³⁾ 그리고 이들의 변신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공간 이동이다.⁴⁾ 또한 인간과 인간세계를 중심으로 그것과 연결된 다른 세계(other world), 즉 타계(他界)가 서사 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신화의 근원적 사유체계는 인간을 설명하기 위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를, 인간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그와 대칭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세계를 통해서 구체화되기 때문이다.⁵⁾

한국 신화에서 대표적 타계이자 신성한 세계의 모델은 단연 하늘세계이다. 하늘은 하나의 계로서 신성한 존재들이 거주하며 전지전능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질서 잡히고 조화로운 세계이다. 대표적으로 <단군신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세계는 환인(桓因)이라는 절대적 존재가 통치하는 이상적 세계이다. 한국의 건국신화에서는 시조왕들은 천상적 존재 혹은 천상에서 지상으로 강림한 존재로 나타난다. 하늘세계 출신인 환웅과 해모수는 자신이 속한 세계를 떠나 지상의 인간세계로 와서 통치자가 된 사례이다.⁶⁾ 한국의 무속신화에서도 천상세계 혹은 천상에 거주하는 신성한

3) 오세정, 『한국 신화에 나타난 변신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16,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72~78면.

4) 김열규는 한국 신화의 보편적인 특성으로 첫째, 신화가 ‘내림굿’ 내지 ‘맞이굿’의 절차를 그 줄거리로 삼고 있다는 점을 든다. 두 번째 특성으로는 이들 신화가 성무식(成巫式)과정에서 요구되고 있는 이른바 타계 여행 내지 우주 여행의 절차를 줄거리로 삼는다는 점이다. 이는 무속의 원리가 한국 신화의 기본틀이 된다는 그의 전제와 일맥상통한다. 무속신화에서는 특히 희생당하는 주인공이나 신격으로 존재론적 변화를 하는 인물들은 성무식 과정의 공간 이동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실현, 획득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김열규, 『한국 신화와 무속』, 김열규 외, 『한국의 무속문화』, 박이정, 1998, 63~64면.

5) 오세정, 『한국 신화의 타계(他界; the other world) 연구 : 수평적 방위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이론과비평』51, 한국문화이론과비평학회, 2011, 317면.

존재에 대해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신성존재들은 지상세계의 존재들을 소환하여 소임을 부여하기도 하고, 인간세계에 개입하여 원조자가 되거나 심판자가 되기도 한다.⁷⁾ 무속신화의 주인공들은 지상이 아닌 다른 세계에 속한 신성한 존재들과의 소통을 통해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 신격으로 변신한다. 지상의 인간들은 하늘세계와 같은 신성한 세계를 설정하고, 그 세계 혹은 그 세계 속 존재들과 관계맺음으로써 귀한 것, 높은 것과의 동질화를 꿈꾸었던 것이다.

하늘 혹은 하늘세계와 같이 신화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간으로 우리는 물세계, 특히 바다를 떠올릴 수 있다. 하늘이 인간과 인간의 지상세계를 중심으로 수직축의 위쪽에 존재한다면, 바다는 인간의 수평축 선상에 존재하는 세계이다. 이 바다는 육지와 육지를 가르는 경계공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늘이나 지상세계와 같은 하나의 계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 바다 자체를 놓고 볼 때 인간세계의 수평축 관념만이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지상의 인간이 자신의 세계의 수직축의 아래쪽에 지하세계를 상상하듯이, 바다세계에도 수직축의 관념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 바다는 수평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바다 속 깊은 곳에 존재하는 세계를 가정할 수 있는 수직적 공간이기도 하다. 바다의 이 같은 타계

6) 해모수는 하늘과 땅을 오가며 통치한 신성한 존재이다. 해모수의 행적에 대한 가장 상세한 묘사는 『동명왕편』에 전한다. 이 기록에 따르면 해모수는 아침에는 인간세상을 다스리고, 저녁에는 다시 자신의 원거주지인 하늘세계로 올라갔다고 한다.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동명왕편.

7) 건국신화에서 천신은 막강한 권능을 가진 절대 신격인 경우가 많다. 반면 무속신화에서는 천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들이 등장하며, 인간과 신이 맺는 관계 양상 또한 다양하다. 무속신화에서는 천신은 지상의 존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건국신화의 신들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한국 신화의 신들이 인간과 맺는 관계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 책 참고. 오세정, 『한국 신화의 생성과 소통 원리』, 한국학술정보, 2005.

로서 갖는 다양한 공간 관념은 지상의 인간세계와 대칭되는 타계로서 혹은 지상과 분리되거나 연결된 공간으로서 신화적 상상력을 자극해왔다.

본 논의는 한국의 신화에서 바다가 갖는 신화적 공간 관념 내지 신화적 상상력을 살필 것이다. 하늘세계에 비해 조명을 덜 받았지만 우리 신화 속에서 바다는 주요한 의미를 갖고 기능하는 신화적 공간이다. 한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로서, 바다와 관련된 신화들이 많다. 특히 한국 신화의 보고인 제주는 많은 신화들이 바다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바다가 단순한 배경 차원이 아니라 서사 내 주요 의미망을 형성하는 신화 텍스트들을 대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 신화의 공간 관념 혹은 세계관에 대한 신화적 상상력의 큰 틀을 구성하는데 일조할 것이며, 공간에 대한 상상력이 어떻게 신화 서사에서 구성되고 의미화되는지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2. 지상세계의 대칭적 타계로서의 바다

하늘세계와 같이, 인간의 지상세계와 구별되는 신성하고 낯선 세계로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세계로는 지하세계, 물세계 등이 있다. 신화의 세계에서는 수직적 공간 관념상 ‘천상-지상-지하’의 세계 분할 체계가 가장 대표적이다. 반면 수평적 공간 관념에서는 지상의 끝에 존재하는 강이나 바다를 떠올릴 수 있다. <그리스·로마신화>에서는 하늘, 지하, 바다의 세계가 구별되고, 각각의 세계를 제우스, 하데스, 포세이돈이 다스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 신화에서는 그 사정이 어떨까?

해모수 혹은 주몽의 신화에서는 강이 하나의 세계로 나타난다. 육지가 끝나는 곳에 바다가 있다면, 땅 위를 흐르는 물이 있다. 혹은 땅 속에서

물이 솟기도 한다. 땅에 발 딛고 서서 사는 인간, 땅위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먹여 살리는 인간에게 강과 우물은 말 그대로 대지의 젖줄이다. 특히 북방의 대지에 펼쳐진 거대한 강은 인간과 구별되는 신성한 세계로 인식되기에 충분했다. 북방의 대표 신화에서는 이 강에 하백(河伯)이라는 신이 살고 있다. 해모수에게 버림받고 우발수에 쫓겨나온 유화가 금와에게 붙들리자 그에게 자신의 사연을 소개하는 대목에서⁸⁾ 물세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해모수의 아내, 혹은 주몽의 어머니인 유화는 물세계의 통치자 하백의 장녀이다. 물 밖으로 놀러 나왔다가 해모수를 만나 정을 통하지만 결국 해모수에게 버림받는 신세가 되고 만다.

고구려의 건국 과정을 가장 자세히 전하고 있는 <동명왕편>에서는 해모수가 유화와 혼인하기 위해 하백이 있는 물 속 세계로 간다. 하백의 물 속 세계는 인간의 지상세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신성한 공간이자 신들의 세계이다. 하늘세계 출신인 해모수뿐 아니라 물세계의 통치자인 하백 역시 신이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해모수와 하백이 신이함을 드러내기 위해 둔갑술로 경쟁하는 대목⁹⁾에서 두 존재의 신성함이 잘 드러난다.

8) 금와에게 붙잡힌 하백의 장녀 유화가 자신의 출처를 고하는 장면에서 물세계를 알 수 있다.

“저는 하백의 딸 유하입니다. 동생들과 함께 나와 놀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있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천제의 아들 해모수다.’고 하면서, 저를 웅심산 아래에 있는 압록강가의 집 속으로 몰래 피어 정을 통하고는 돌아오지 않았습시다. 부모님께서 내가 중매도 없이 남을 따랐다고 꾸짖고, 마침내 우발수에 내쫓아 살게 한 것입니다.”고 하였다. [我是河伯之女 名柳花 與諸弟出遊 時有一男子 自言天帝子解慕漱 誘我於熊心山(熊神山) 下鴨(鴨綠) 邊室中 私之 卽往不返 父母責我無媒而從人 遂謫居優渤水]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9) 하백이 말하기를, “왕이 천제의 아들이라면 무슨 신이함이 있는가?” 하자, 왕은 “무엇이든지 시험해 보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하백이 뜰 앞의 물에서 잉어로 변하여 물결을 따라 놀자 왕은 수달로 변해 이를 잡았다. 하백이 다시 사슴이 되어 달아나자 왕은 늑대가 되어 이를 쫓았다. 하백이 꿩으로 변하자 왕은 매가 되어 공격했다. 하백은 그를 참으로 천제의 아들이라 생각하여 예로써 혼례를 치렀다. [河伯曰 王是天帝之

이 신화의 전승집단에게 세계 구성은 3체계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모수의 원거주지인 하늘세계가 있고, 인간들이 살고 있는 지상세계가 있다. 그리고 하백과 그의 가솔들이 살고 있는 물세계가 존재한다. 여기서 물세계는 한국 신화에서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최고의 신성공간인 하늘세계와 상동적이다. 인간세계와는 대칭적인 공간이며, 인간존재보다 우월한 신이한 존재들이 사는 세계인 것이다. 물론 해모수와 하백의 대립 구도에서 나타나듯이 하늘과 물의 세계, 그리고 그 세계 속 존재의 신성성은 우열 관계를 가진다. 하늘세계에 비해 물세계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다.

그런데 하백이 등장하는 고구려 계통 신화 이외의 본토의 다른 건국신화에서는 물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특히 바다 속 세계에 대한 내용은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한국에 전하는 많은 설화나 소설에서 바다 속 세계가 등장하는데, 그 세계는 대부분 ‘용왕(龍王)’이 다스리는 ‘용궁(龍宮)’의 형태를 띤다.¹⁰⁾ 한국에서 대표적 ‘수신(水神)’은 ‘용신(龍神)’이다. 용은 동양 전통에서 호랑이와 짝으로 자주 등장하는 신성한 동물이다. 많은 기록에서 호랑이는 산에 거주하는 존재로 ‘산신(山神)’의 위용을 가지며, 용은 ‘물’에 거주하며 ‘수신’과 동일시된다. 바다 속 세계의 왕이 용으로 표현되는 것은 이러한 수신 관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건국신화에서는 찾기 어렵지만 무속신화에서는 용왕과 용궁이 종종 출현한다.

제주도 당신(堂神)본풀이 중 <송당본풀이> 혹은 <웨네깃당본풀이>로 불리는 신화가 있다. 이 신화는 땅에서 용출(湧出)한 두 신인(神人)의 아들이 신으로 좌정하는 내력을 담고 있다. 대략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子有何神異 王曰 唯在所試 於是 河伯於庭前水 化爲鯉 隨浪而遊 王化爲獺而捕之 河伯又化爲鹿而走 王化爲豺逐之 河伯化爲雉 王化爲鷹擊之 河伯以爲誠是天帝之子 以禮成婚]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동명왕편.

10) 특히 『삼국유사』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에서 바다 속 신이한 존재들이 용 혹은 용왕으로 표현되어 있다.

과 같다.

소천국과 백주또가 땅에서 솟아났다. 백주또가 소천국을 찾아와 결혼을 하였다. 자식을 다섯을 낳고 또 여섯째를 임신하고 있었다. 백주또는 소천국에게 농사를 지어 가족을 먹여살릴 것을 요구하였다. 어느날 밭에 일하러 간 소천국이 자기 소와 남의 소 두 마리를 잡아 먹어버렸다. 백주또가 농사를 게을리하고 소를 먹어치운 것에 분개해 소천국과 갈라섰다. 이후 백주또가 여섯째 아이를 낳고 자식을 데리고 소천국을 찾아갔다. 막내 아들이 소천국의 수업을 뵈고 가슴을 짓누르는 바람에 화가난 소천국이 무쇠석갑에 아이를 담아 동해로 띄어보냈다. 용왕황제국의 막내딸이 무쇠석갑을 발견하자 그 안에 도령이 있었다. 용왕은 도령을 막내딸과 결혼시켰는데, 도령이 너무 많이 먹자 막내딸과 함께 용왕국에서 내쫓았다. 강남천자국에 도착한 도령은 그곳의 정변을 정리하여 큰 공을 세웠다. 천자로부터 재물과 군사를 받고 귀향했다. 좋은 터를 잡아 좌정하고 사람들로부터 제사를 받게 되었다.¹¹⁾

이 신화는 여타의 신화에 비해 바다와 바다세계에 대한 내용이 매우 풍부하다. 주인공이 무쇠석갑에 갇혀 바다에 버려졌다가 ‘용왕국’에 표착하여 거기서 혼인을 올린다. 바다에는 인간이나 신이 사는 하나의 계와 같은 용왕이 통치하는 용왕국이 존재하는 것이다. 주인공은 아내와 함께 용왕국을 나와 지상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해모수와 하백의 장녀 유화의 결연 과정을 연상시킨다.

<송당본풀이>에 나타나는 바다세계, 즉 용궁은 인간과 구별되는 신이 한 세계이긴 하지만 한국 신화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하늘세계와 비교해 볼 때, 신성성에서 열위에 놓인다. 이 신화에서 바다세계는 인간세계와 유사한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용왕이 특별한 신성 권능을 보여주

11)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552~560면.

는 대목은 없다. 하지만 각편에 따라 주인공이 용왕국에서 나올 때 용왕으로부터 금속불이와 망아지 등을 얻는 대목이 있다.¹²⁾ 이러한 대목을 통해 우리는 바다세계가 지상의 인간세계보다 문명화되고 문화가 발전한 곳 혹은 보물과 신물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¹³⁾

용궁에 대한 묘사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심청무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신화는 애초부터 무속신화로 존재했다기보다는 소설 내지 판소리가 무속신화로 수용된 서사무가이다.¹⁴⁾ 심청이야기가 신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심청의 환생 때문이다. 바다에 빠진 심청을 살리고 지상으로 보내 황후가 될 수 있게 해 준 인물이 바로 용왕이다. 그런데 판소리 혹은 소설 심청 이야기들에서는 대부분 용왕은 옥황상제, 즉 하늘세계 신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로 나온다. 요컨대 용왕은 인간들보다 분명 우위에 있는 신이한 존재이지만, 하늘세계의 천신에 비해서는 열위에 있는 존재인 것이다.

바다에 둘러싸인 신화의 섬, 제주도에서도 바다신의 위상은 다른 신들에 비해 열위에 놓인다. 바다 관련 신앙이 어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는지는 신앙 대상으로 섬겨지는 신의 위계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¹⁵⁾ 제주도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이 모두 1만 8천에 이른다고 한다. 큰

12) 유사한 내용의 각편 <궁당 분향당본풀이>에서는 주인공이 용왕에게 얻은 망아지를 타고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는 것으로 나온다. 앞의 책, 522면.

13) 금속불이나 망아지와 같은 동물은 고대 사회에서 통치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석기문화에서 금속문화로의 전하는 국가를 탄생시켰으며, 우마(牛馬)는 농경과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야장기술은 <탈해신화>에서 확인되듯 초기 국가의 통치자에게 필요한 주요덕목이었다.

14) <심청무가>의 형성과 판소리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래 글 참고.
김진영, 김영수, 홍대한 편, 『심청굿 무가의 변이 양상과 형성과정 추론』, 『서사무가 심청 전집』, 민속원, 2001.

15) 편집부, 『한국 제주의 해양신앙』, 『도서문화』27,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06, 124~127면.

곳 ‘젯드리’에서 제시되는 신들을 보면 어떤 신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신들의 서열을 파악할 수 있다. 젯드리에 따르면 해양신앙과 관련된 신으로 ‘다섯 용궁’을 꼽을 수 있다. 하늘 차지 옥황상제, 땅 차지 지부사 천대왕, 산 차지 산신대왕 산신백관 다음인 네 번째로 바다 차지 용신인 ‘다섯 용궁’이 제시된다.¹⁶⁾ 또한 제의에서도 용신과 관련된 제차가 따로 없는데, 이는 큰굿에서 용신은 반드시 독립 제차로 모셔야 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¹⁷⁾

이 같은 점들을 미루어 볼 때, 한국 신화에서 바다세계를 하늘세계와 같은 신성한 타계로서 존재한다고 간주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의 신화에서, 그리고 제주도의 신화에서 여전히 바다는 인간세계와 대칭적으로 존재하는 타계로서, 혹은 세계간 경계나 이행공간으로서 신화적 상상력의 중요한 형상소가 되고 있다.

3. 선진 문화 수용 경로로서의 바다

우리 신화에서 바다는 선진 문물, 혹은 선진 문화의 수용과 직접 관련된 경우가 많다. 앞에서 언급한 <송당본풀이>에서 볼 수 있듯이 바다세계가 인간세계에는 없거나 귀한 신물을 가지고 있거나, <심청무가>에서처럼

16) 현용준, 『제주도 무속 연구』, 집문당, 1986, 189면.

17) 제주도나 해안 지역에서는 바다신이나 신성한 세계로서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을지 모른다. 중국의 용(龍) 신화가 전래되면서 우리 고유의 해양신과 그 신화적 상상력이 약화되고 용궁과 용왕의 이미지가 패턴화되었을 것이다. 한반도 본토에 비해 토속성이 강한 제주도의 토속신인 영등할망과 선문대할망도 중국의 관음사상의 영향을 받아 그 성격이 변모되었다는 논의도 있다. 이 논의는 아래 글 참고.

송화섭, 『동아시아 해양신앙과 제주도의 영등할망·선문대할망』, 『탐라문화』3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우월한 능력을 가진 자가 다스리는 세계이다. 이들 신화에서 바다세계, 즉 용궁이나 그 세계의 통치자가 인간과 인간세계보다 문화적으로나 능력 면에서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가락국신화>나 <삼성신화>에서는 바다 건너 등장한 이인(異人)들을 통해 지상의 인간세계에 선진 문화가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락국신화>는 하늘의 명에 따라 강림한 수로가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오르는 내용이다. 이 신화는 특히 시조왕 수로와 그의 비 허황옥의 신성혼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허황옥은 자신의 왕국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한반도 남쪽 가야땅에 도착한 인물이다. 그는 자신을 아유타국(阿踰陁國)의 공주이며, 황천상제의 명에 따라 바다를 건너 수로와 혼인하기 위해서 왔다고 밝힌다.¹⁸⁾

18) 건국신화에서는 시조왕의 배우자가 중요한 인물로 소개된다. 환웅의 응녀나 혁거세의 알영, 수로의 허황옥이 대표적이다. 시조왕들은 주로 하늘세계에서 지상으로 탄강한 이주 세력이라면, 그 배우자들은 토착세력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가락국신화>의 허황옥은 응녀나 알영과 달리 토착세력이 아니라 그녀 역시 이주세력이라는 점에서 특이하다. 허황옥의 등장과 관련해서 『삼국유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갑자기 바다 서쪽에서 붉은 빛의 돛을 단 배가 붉은 기를 휘날리면서 북쪽을 바라보고 오고 있었다.“저는 아유타국(阿踰陁國)의 공주인데, 성은 허(許)이고 이름은 황옥(黃玉)이며 나이는 16세입니다. 본국에 있을 때 금년 5월에 부왕과 모후(母后)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젯밤 꿈에 함께 하늘의 상제(上帝)를 뵈었는데, 상제께서는, 가락국의 왕 수로를 하늘이 내려보내서 왕위에 오르게 하였으니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사람이다. 또 나라를 새로 다스리는 데 있어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했으니 경들은 공주를 보내서 그 배필을 삼게 하라 하시고, 말을 마치자 하늘로 올라가셨다. 꿈을 깬 뒤에도 상제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그대로 남아 있으니, 너는 이 자리에서 곧 부모를 작별하고 그곳으로 떠나라’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배를 타고 멀리 증조(蒸棗)를 찾고, 하늘로 가서 반도(蟠桃)를 찾아 이제 모양을 가다듬고 감히 용안(龍顏)을 가까이하게 되었습니다.” [忽自海之西南隅 掛緋帆 張茜旗 而指乎北..... 妾是阿踰陁國公主也 姓許名黃玉 年二八矣 在本國時 今年五月中 父王與皇后顧問而語曰 爺孃一昨夢中 同見皇天上帝 謂曰 駕洛國元君首露者 天所降而俾御大寶 乃神乃聖 惟其人乎 且以新蒞家邦 未定配偶 卿等須遣公主而配之 言訖升天

하늘의 명에 따라 지상에 출현한 수로는 장성한 후 가락국의 왕이 되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혼례를 치르려 하지 않자 주변 신하들의 걱정이 많았다. 신하들이 수로에게 결혼할 것을 종용하면 수로는 하늘이 정해진 배필이 있으니 그를 기다린다고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수로 앞에 허황옥이 나타난 것이다. 지상의 범인들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신군(神君)들의 배우자는 그 역시 신이함이 필요하다. 신성한 자는 신성한 자와 결합해야 하는, 신화의 ‘신성혼(神聖婚)’의 논리이다. 천자 해모수의 배필은 물신의 장녀 하백이었고, 신라 시조 혁거세의 배필은 우물가 계룡이 낳은 신성한 존재인 알영이었다. 가락국의 신화에서도 수로와 허황옥의 혼사를 통해 신성혼의 논리를 잘 보여준다. 허황옥은 바다 저 건너 낮선 세계인 아유타국에서 온 귀인이다. 아유타국의 공주로, 하늘의 상제의 명을 받아 가락국 수로의 배필이 되기 위해 바다를 건너 왔다. 여기에 덧붙여 허황옥은 자신의 존재론적 위상을 높여 신군과 결혼하기 위한 조건을 갖춘다. 그녀는 신선계에 있다는 좋은 과실과 3,000년에 한 번 열린다는 복숭아를 혼례품으로 구해왔다.¹⁹⁾

수로가 천상에서 지상으로 수직 이동한 인물이라면, 허황옥은 바다 건너 세계에서 수평이동하여 가야에 도착한 인물이다. 이 신화에서 바다는 하백의 물세계와 같이 인간세계와 구별되는 신성한 타계가 아니라, 지금 여기의 지상세계와 구별되는 다른 지상세계 사이에 놓인 경계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허황옥은 바다 멀리 다른 세계에서 온 이인이자 귀인이며, 그가 속했던 세계는 기존의 가야를 문화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만큼²⁰⁾ 선

形開之後 上帝之言 其猶在耳 你於此而忽辭親向彼乎往矣 妾也浮海遐尋於蒸棗 移天負赴於蟠桃 螭首敢叨 龍顏是近] 『삼국유사』, 가락국기.

19) 김태곤, 김운식, 김진영 편저, 『한국의 신화』, 시인사, 1990, 83면.

20) 허황옥이 직접 정치활동을 통해 가야의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구절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수로가 허황옥과의 혼인 이후 당시 가락국의 관제에 대해 외지에 전해지면

진적인 문명과 문화를 가진 세계라 할 수 있다.

이야기의 기준점이 되는 현실의 지상세계로 도래한 이인이나 귀인들은 지상의 범인들에 비해 뛰어난 능력을 가졌거나 신물이나 영물을 통해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인물들이다. 허황옥처럼 타지에서 도래한 인물인 탈해 역시 범인들과 구별되는 뛰어난 자질과 문화적 역량을 가진 이인이다. 탈해가 신라에 정착하기 위해 호공의 집을 빼앗는 과정에서 ‘야장무(冶匠巫)’의 성격을 보여준다.²¹⁾ 고대국가 건립기에 통치자에게 필요했던 중요한 덕목이 바로 철을 다루는 능력과 기술이라면, 탈해는 그러한 자질을 갖춘 유능한 인물인 셈이다.

<가락국신화>의 허황옥과 유사한 인물이, 탐라국의 건국신화이자 양(良), 고(高), 부(夫) 삼성(三性)의 시조신화에 해당하는 <삼성신화>²²⁾에 등장한다. <삼성신화>는 『고려사지리지』, 『영주지(瀛洲誌)』, 『세종실록지리지』, 『탐라지(耽羅誌)』 등에 전한다. 여기서는 이원진(李元鎭)이 편찬한 『탐라지』에 전하는 내용을 소개한다.²³⁾

삼성혈은 제주에서 남쪽 3리쯤 되는 곳에 있으니, 옛이름은 모홍혈이다. 『고려사』 『고기』에 이르되, 애초에 사람이 없더니 땅에서 세 신인이 솟아났다. 지금의 한라산 북쪽 기슭에 모홍이라 부르는 혈이 있는데 이것이 그곳이다. 만이가 양을나요, 버금이 고을나며, 셋째가 부을나다. 세 사람은 거친 두메에서 사냥을 하여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먹고 살았다. 하루는 자주빛 흙으로 봉해진 목함이 동해변에 떠오르는 것을 보고 나아가 이를 열었더니 안에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체제를 개편·정비하는데 힘을 기울인다. 이러한 대목을 통해 허황옥이등장이 가락국의 체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음을 추리할 수 있다.

21) 김열규, 『한국문화사-그 형상과 해석-』, 탐구당, 1996, 387면.

22) 이 신화는 『고려사지리지』, 『영주지』, 『세종실록지리지』, 『탐라지』 등에 전한다.

23) 『탐라지』는 효종 2년(1651)에 이원진이 제주부사로 부임하여 편찬하였다. 국립도서관 소장본이며, 『조선시대사찬읍지』(한국인문과학원, 1989)에 영인되어 실렸다.

석함이 있는데 붉은 띠를 두르고 자주빛 옷을 입은 사자가 따라와 있었다. 함을 여니 속에는 푸른 옷을 입은 처녀 세 사람과 망아지 송아지와 오곡의 씨앗이 있었다. 이에 말하기를 “나는 일본국 사자입니다. 우리 임금께서 이 세 따님을 낳으시고 말씀하시길, ‘서해중의 산기슭에 신자 세 사람이 강탄하시어 장차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구나.’ 하시고 신에게 명하여 세 따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마땅히 배필을 삼으셔서 대업을 이루소서.” 하고 사자는 홀연히 구름을 타고 날아가 버렸다. 세 사람은 나이 차례에 따라 나누어 장가들고 물이 좋고 땅이 기름진 곳으로 나아가 활을 쏘아 거처할 땅을 점치었다. 양을나가 거처하는 곳을 제일도라 하고, 고을나가 거처하는 곳을 제일도라 하고, 부을나가 거처하는 곳을 제삼도라 하였다. 비로소 오곡의 씨앗을 뿌리고 소와 말을 기르게 되니 날로 백성이 많아지고 부유해졌다.²⁴⁾

이 신화는 양, 고, 부씨 성의 시조가 땅에서 솟아난 사건과 이들의 배우자가 출현하여 혼인한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바다 건너온 배우자들의 성격과 그들의 출현 이후 탐라국의 변화이다. 사신에 따르면 자신과 여인들은 바다 건너 ‘일본국’에서 왔다. 여기서 일본국이 실제 일본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고려사』에서는 일본국으로 나오지만, 『영주지(瀛洲誌)』에서는 ‘碧浪國’으로 나온다.²⁵⁾ 어찌됐든 사신과 세 여인의 출신지는 당시 탐라국보다 문

24) 三姓穴在州南三里 卽古毛興穴 高麗史古記云 厥初無人物 三神人從地湧出 今鎮山北麓有穴曰毛興是其地也 長曰良乙那次曰高乙那三曰夫乙那 三人遊獵荒僻 皮衣肉食 一日見紫泥封木函 浮至東海濱就而開之 內有石函 有一紅帶紫衣使者隨來 開函有青衣處女三人 及諸駒犢五穀種 乃曰 我是日本國使也 吾王生此三女云西海中嶽 降神子三人 將欲開國而無配匹 於是命臣侍三女而來 宜作配以成大業 使者忽乘雲而去 三人而歲次分娶之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良乙那所居曰第一徒 高乙那所居曰第二徒 夫乙那所居曰第三徒 始播五穀且牧駒犢日就富庶 李元鎮, 『耽羅志』, 濟州, 古跡.

25) 서대석은 조선시대 사서 편찬 과정에서 합리성이 강조되는 경향 때문에 <삼성신화>에서 ‘일본국’으로 표기되었다고 본다. 서대석,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7, 49~50면.

화적으로 앞선 나라임이 분명하다. 탐라에 시조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통치자가 존재하며, 그 통치자는 탐라국의 실정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공주들을 모시고 온 사신 또한 구름을 타는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여인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탐라국의 경제체제가 바뀐다는 점이 중요하다. 세 여인들은 돌 함을 타고 탐라에 도착했는데, 이 때 망아지, 송아지, 오곡 씨앗을 갖고 왔다. 이들의 등장 이전에는 탐라국은 수렵생활을 했었는데, 이후부터 농경과 목축이 성행하게 되고 백성들이 부유하게 되었다. 요컨대 <삼성신화>에서 세 여인은 바다 건너 농경문화가 번성한 땅에서 온 인물들이며, 이들의 도래로 말미암아 탐라국에는 비로소 농경문화가 시작된 것이다.

4. 죽음과 재생의 공간으로서의 바다

바다는 육지의 수평축 끝에 있다. 다시 말해 바다는 육지의 끝, 지상세계의 가장자리를 드러내는 지표가 된다. 바다는 지상세계의 외곽 테두리를 결정하며, 이 바깥은 지상적 삶의 종결을 의미한다. 지상에서 바다로 향하는 것이 <가락국신화>나 <삼성신화>의 여성주인공들처럼 자발적인 행위로, 바다 건너 새로운 세계로 이동하기 위한 경우가 있다. 이때 두 신화의 여성주인공들은 새로운 세계로의 문화 전파의 소임을 띤다. 하지만 <심청무가>의 주인공 심청처럼 바다로 내보내지는 것이 기존의 삶을 말살당하거나 더 이상 지상에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추방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바다가 갖는 추방 내지 죽음의 의미를 여러 신화에서 찾을 수 있다.

신라의 석씨 왕조 시조인 탈해가 출신지에서 바다로 내몰리는 것 역시

추방의 의미이다. 탈해는 혁거세와 같은 하늘세계 출신도 아니며, 신라 본토 출신도 아니다. 그의 이야기를 전하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모두 탈해의 출신지를 “왜국(倭國)의 동북면 1천 리 되는 곳”에 있다고 전한다. 탈해는 본국의 왕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임신한 지 7년이 되어 큰 알로 태어났다. 그런데 부왕은 이 난생을 상서롭지 못한 일로 여겨 바다에 띄어 보낸다.²⁶⁾

탈해의 출신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정확하게 고구할 수는 없다. 서역의 여러 소국 중 하나, 혹은 캄차카 반도에 있는 나라로 추정되기도 한다.²⁷⁾ 문맥상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탈해는 인간이 잉태하여 태어난 인물이며,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추방당하며, 이후 바다를 건너 새로운 세계에 와서 왕이 된다는 점이다. <탈해신화>에서 바다는 허황옥의 경우처럼, 중심이 되는 세계에서 멀리 떨어진 또 다른 세계와의 경계공간으로서 기능한다. 그런데 탈해는 허황옥과 달리 본국에서 추방당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탈해에게 있어서 최초의 바다는 유배, 내지 추방, 기존 세계에서의 존재론적 죽음을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했던 <송당본풀이>의 도령 역시 탈해와 유사한 운명이다. 탈해가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과 같이 도령 역시 신인들의 소생이지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 바다로 추방된다.

제주도의 무속신화 <칠성본풀이>에서도 추방, 죽음의 의미를 가진 공간으로서 바다가 잘 드러난다. 생산신, 재복신인 칠성신은 뱀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한데, 이 사신(蛇神)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하

26) 『삼국사기』, 탈해이사금.

『삼국유사』, 제4탈해왕.

27) 『위서(魏書)』 영평(永平) 원년(508년) 3월 기해조(己亥條)에는 북위에 조공을 바치러 온 서역의 여러 소국 가운데 ‘다파나(多婆那)’란 지명의 명칭이 나오고 있다. 캄차카 반도설은 아래 글 참고.

김화경, 『한국 신화의 원류』, 지식산업사, 2005, 239~248면.

면 다음과 같다.

칠성신에게 치성을 드려(절간에 불공을 드려) 태어난 귀한 집안의 딸이 있었다.²⁸⁾ 부모가 벼슬길에 오르면서 딸을 잃어버리게 된다. 나중에 다시 찾게 되었을 때 딸은 중의 자식을 임신한 상태였다. 임신한 딸은 돌함에 갇혀 바다에 버려지게 되었다. 바다를 따라 떠다니던 돌함은 제주도에 표착했는데, 이때 이 딸이 뱀의 몸으로 변신하여 딸 일곱을 낳았다. 그 딸들도 모두 뱀이었다. 이 뱀 모녀들이 각각 신이 되었다. 1녀는 추수할망으로 곡신과 농경신, 2녀는 관청할망으로 관청수호신과 관운신(官運神), 3녀는 울할망으로 형벌과 치병신, 4녀는 과원할망으로 과원수호신, 5녀는 창고할망으로 창고수호신, 6녀는 관청못할망으로 수신, 막내딸은 역대부군칠성으로 밭칠성과 부신(富神), 농경신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열두시만국신[十二神 萬穀神]으로 안칠성과 부신, 그리고 농경신 등을 맡게 되었다고 한다.²⁹⁾

한국의 신화체계 내에서 동물이 곧 신으로 숭배되는 경우는 찾기 힘들지만, 예술과 종교, 신화의 세계에서 뱀은 풍요와 다산, 생명과 죽음, 지혜, 사후 세계와 쉽게 연결된다.³⁰⁾ 또한 이 신화에서 사신은 한국의 민간 신앙에서 뱀이 갖는 신화적 의미와도 일맥상통한다.³¹⁾ 이 신화의 여성주인

28) <칠성본풀이>는 아카마츠(赤松智城), 아키바(秋葉隆)가 채록한 초기본(박봉춘 구연)이 있고, 이밖에도 진성기 채록본(이무생본, 고창학본), 현용준 채록본(안사인본) 등이 있다. 각편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현용준은 7편의 <칠성본풀이>를 대상으로 칠성기자형(七星祈子型)과 사찰기자형(寺刹祈子型)으로 나누었다. 이는 여성 주인공이 탄생 과정에서 부모가 칠성신에게 기자했는가, 사찰에 기자하여 낳았는가의 차이이다.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139~142면.

29) 이 신화에서 사신과 그 딸들은 모두 신으로 좌정하는데, 각기 맡은 신의 직능은 각편마다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농경, 재복, 풍요 등을 관장하는 신으로 볼 수 있다. 이 대목은 아래 전승본의 내용을 따랐다.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앞의 책, 356~358면.

30) 니콜라스 J. 손더스, 『동물의 영혼』, 강미경 역, 창해, 2005, 102면.

공은 부모의 기자정성으로 명문가의 딸로 태어났지만 스님의 꼬임에 빠져 임신을 하게 된다. 칠성신과 유사한 인물로 <제석본풀이>의 당금애기를 들 수 있다. 한국 무속신화에서 여성들은 아버지나 남편에 의해 시련을 겪거나 박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당금애기가 부모의 허락 없이 외간남자와 사통하게 되자 돌함에 갇혀 생매장된다. 제주도의 생산신이자 재복신인 칠성신 역시 같은 상황에서 돌함에 갇혀 바다에 수장된다. 이때 바다는 지상에서의 기존 삶, 존재태가 부정되어 말살되는 공간, 죽음과 윤희의 공간이 된다.

한국 신화에서 바다는 많은 주인공들이 기존의 삶이 부정되고, 추방되어 죽음을 맞이하는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새로운 존재로의 변신과 부활이 이루어지는 공간 역시 바다이다. <송당본풀이>의 주인공은 특히 바다를 통해 존재론적 변신을 꾀하는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야기의 주인공 도령은 아버지로부터 추방되어 바다에 버려진다. 그리고 용왕국에서 구원되어 신물을 얻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다. 도령은 바다를 통해 아버지의 땅에서 용왕국으로, 용왕국에서 다시 강남천자국으로, 여기에서 다시 자신의 고향땅으로 이동한다. 태어난 곳을 떠나, 다른 세계로 이동했다가 성공하여 다시 귀향하는 영웅들의 여행 경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³²⁾ 특히 도령은 다른 세계로의 이동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존재론적 지위를 향상시킨다.

<칠성본풀이>의 여성 주인공도 바다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변신한다. 칠성신은 명문가의 딸로 유복하게 태어났지만 스님의 꼬임에 빠

31) 오세정, 『한국 신화에 나타난 동물들에 대한 상상력』, 『시학과 언어학』22, 시학과 언어학회, 2012, 216~218면.

32) 캠벨의 원형신화를 바탕으로 보글러는 영웅의 여행담을 12단계로 정리했다. 크리스토퍼 보글러, 『신화, 영웅, 그리고 시나리오 쓰기』, 함춘성 역, 무우수, 2005, 53~71면.

저 임신을 하는 바람에 아버지에게 의해 처벌받는다. <송당본풀이>의 도령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 의해 지금까지의 존재태가 완전하게 부정되고 말살된다. 돌함에 갇혀 바다를 부유하던 칠성신이 새로운 지상에 당도하였을 때, 그녀와 그 딸들은 모두 뱀으로 변해있었다. 기존의 세계에서 부정되고 징치되었던 여성이 바다를 지나 새로운 세계에 도착하자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 신성한 존재로 바뀌었다. 여기서 바다는 시련과 통과제의의 공간이며, 재생과 부활의 공간이다.

바다가 갖는 죽음과 재생의 논리는 <심청무가>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한다. <심청무가>가 불려지는 곳판에서는 선주(船主)들이 바다에서 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심청신을 모신다. 이 무속제의 현장에서 심청신은 해신(海神)이다. 하지만 유희처럼 애초부터 바다 속 존재가 아니라 육지에 살던 인간이었으며, 맹인 아버 밑에서 힘들게 일해야 하는 미천한 신분의 여인이었다. 그녀는 재물에 팔려 바다에 던져진 희생제물이었다.

이처럼 바다는 재생의 공간으로서 주요한 신화적 의미를 갖는다. 물은 근원이자 원천의 의미를 가지며, 모든 존재 가능성의 저장소이다.³³⁾ 특히 바다의 움직임은 침수(浸水)와 부상(浮上)의 양방향적 의미체계를 형성한다. 침수는 형태의 해체, 즉 죽음을 상징하고, 부상은 이와 반대로 재생을 의미한다.³⁴⁾ 예컨대 심청이 바다에 빠지는 것은 그 직전까지의 존재태는 죽음을 맞이한 것을 의미하고, 심청이 연꽃을 타고 다시 바다 위에 떠오른 것은 새로운 존재로의 변신을 의미한다. 침수와 부상은 수직적 공간이동의 의미망을 드러낸다면, 바닷물이 밀려가고 밀려오는 움직임은 수직적 공간이동을 의미한다. 출신지에서 바다로 밀려가는 것은 기존 존재태의 죽음을 의미한다면, 새롭게 밀려가 당도한 땅에서는 새로운 존재로 탄생

33)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미지와 상징』, 이재실 역, 까치, 2007, 165면.

34) 앞의 책, 166면.

하계 뒹을 의미한다. 칠성신이나 탈해의 경우는 바다를 통해 밀려갔다가 새로운 세계에 당도함으로써 존재론적 변신을 완수한다.

5. 결론

신화 서사는 공간 위주로 구성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화 속 공간은 단순히 이야기의 배경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화의 주요 등장인물들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그들의 행위의 방향과 결과까지 직접 관련을 맺고 있다. 서사의 전개 역시 철저히 공간적으로 형성되며, 공간 이동 과정에서 핵심 가치와 이념이 형상화된다. 한국 신화에서 인간 세상과 대칭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세계의 대명사는 하늘세계이다. 하늘은 인간의 지상세계에서 수직으로 위에 존재하는 세계로, 모든 가치와 질서 상 최상위에 있다. 신성함의 출처이자 인간세상이 모방해야할 대상으로 하늘세계가 존재한다. 수평적 방위선상에 놓이는 대표적 세계로는 바다가 있다. 이 바다는 하늘세계와 같이 신성한 타계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인간세계와 구별되는 신이한 세계 내지 신물과 이인이 존재하는 세계로 볼 수 있다. 바다는 세계를 구획하는 경계공간이 되거나, 인간과 문화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매개공간이 되기도 한다. 또한 바다는 죽음과 추방을 의미하기도 하며 동시에 재생과 부활의 상징적 공간이 되기도 한다.

<주몽신화>에 나타나는 물세계는 하늘세계와 같이 신이 살고 있는 신이한 세계이다. 하지만 우리 신화에서 바다세계는 대부분 용궁 혹은 용왕국으로 나타나는데, 천신이 다스리는 하늘세계와 같은 성스러운 세계로서의 의미는 많이 약화되어 있다. 바다세계 대 인간세계의 관계가 하늘과 인간세계와의 관계처럼 단선적인 ‘성(聖) : 속(俗)’의 대립체계라고 보기

는 어렵다. 민간신앙에서도 천신, 산신, 대지신에 비해 바다신이 열위에 놓인다는 점을 보더라도 우리 신화에서 성스러운 타계로서 바다의 의미는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용왕은 지상의 인간과는 구별되는 신이 한 존재로 출현하며, 용궁에는 지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신물이나 있거나 지상보다 문화적으로 우위에 있는 공간이다.

바다는 경계와 이행의 서사공간으로서 주된 기능을 한다. <가락국신화>와 <삼성신화>에서 남성주인공의 배우자들이 모두 바다 건너 온 이국 출신이다. 이국 출신의 배우자들은 비록 신이나 그의 후예는 아니지만, 신의 명을 받아 신물들을 지참해서 신성한 존재와 혼인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온다. 바다 건너 저편 세계에 대한 신화적 상상력은 지금 여기 세계보다 더 뛰어난 문명과 문화를 가진 세계, 그리고 지금 여기의 세계에는 부재하는 이인이나 귀인이 존재하는 세계로 표상된다. 이 신화들에서 바다는 세계들간의 거대한 경계공간이며, 동시에 동떨어진 두 세계간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매개공간이 된다.

바다는 죽음과 부활의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 지상의 존재가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그 존재 기반 자체를 박탈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탈해신화>, <심청무가>, <송당본풀이>, <칠성본풀이>의 주인공들이 이렇게 자신의 존재론적 기반을 박탈당한 인물들이다. 이들은 모두 바다에 버려지지만, 바다를 나와 새로운 세계에 도착하면서 존재론적 변신을 성취한다. 탈해는 왕이 되고, 심청은 왕후가 된 후 신이 되며, 나머지 두 무속 신화의 주인공 또한 신으로 좌정한다. 신화의 핵심 주지가 변신이라고 할 때, 바다에 던져지는 것만큼 죽음과 부활, 신성한 존재로의 변신을 잘 형상화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을까?

바다는 인간세계의 수평축 상에 존재하지만 동시에 인간세계가 아닌 또다른 세계이며, 분리와 경계를 의미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교류와 소

통을 의미하는 공간이다. 지상에서의 기존 삶의 죽음과 추방을 의미하면서도, 동시에 바다를 통해 재생과 부활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지상에서 바다를 바라본 인간들은 바다가 갖는 대립적이면서도 순환적이며 통합적인 신화적 의미를 만들어냈다. 한국 신화에서 바다는 새로운 문화의 수용과 새로운 탄생이라는 인간 삶의 본질적 의미가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

참고문헌

- 김부식, 『삼국사기』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이원진, 『탐라지』
일연, 『삼국유사』
김태근, 김운식, 김진영 편저, 『한국의 신화』, 시인사, 1990, 1~347면.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진』, 각, 2007, 1~859면.
- 김열규, 『한국문학사-그 형상과 해석』, 탐구당, 1996, 1~550면.
_____, 『한국의 무속문화』, 박이정, 1998, 1~204면.
_____, 『한국인의 신화-저 너머, 저 속, 저 심연으로』, 일조각, 2005, 1~280면.
김진영, 김영수, 홍태한 편, 『심청굿 무가의 변이 양상과 형성과정 추론』, 『서사무가 심청 전집』, 민속원, 2001, 9~33면.
김화경, 『한국 신화의 원류』, 지식산업사, 2005, 1~280면.
니콜라스 J. 손더스, 『동물의 영혼』, 강미경 역, 창해, 2005, 1~230면.
미리치아 엘리야데, 『이미지와 상징』, 이재실 역, 까치, 2007, 1~224면.
서대석,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7, 1~346면.
송화섭, 『동아시아 해양신앙과 제주도의 영등할망·선문대할망』, 『탐라문화』3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183~222면.
에드문드 리치, 『신화로서의 창세기』, 구본인 역, 파란나라, 1995, 1~150면.

- 오세정, 『한국 신화의 원형적 상상력의 구조』, 『한민족어문학49』, 한민족어문학회, 2006, 231~266면.
- _____, 『한국 신화에 나타난 변신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16,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67~96면.
- _____, 『한국 신화의 타계(他界: the other world) 연구: 수평적 방위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51,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1, 317~335면.
- _____, 『한국 신화의 생성과 소통 원리』, 한국학술정보, 2005, 1~312면.
- 크리스토퍼 보글러, 『신화, 영웅, 그리고 시나리오 쓰기』, 함춘성 역, 무우수, 2005, 1~448면.
- 편집부, 『한국 제주도의 해양신앙』, 『도서문화』27,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06, 123~135면.
- 현용준, 『제주도 무속 연구』, 집문당, 1986, 1~476면.
- _____,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1~262면.

ABSTRACT

Meaning of the Sea in Korean Mythology

Oh, Se-jeong

Space of myth as narrative determines the nature of characters and proceed with events in stories. The sea is outstanding mytheme and mythical space which stimulate man to make understand the world and human. The meaning of the sea in Korean mythology can be summarized as follow.

First, the sea is the mythical world which can be distinguished from human world and there are mysterious treasure or useful thing and mysterious persons who have unusual abilities. 〈Sondang bonpuri〉 and 〈Simcheong muga〉 shows the ‘Yonggung’ that is the Dragon King’s underwater palace.

Second, the sea is a block perimeter space between the worlds and a mediative space which takes place cultural exchange. Female protagonists in 〈Myth of Garakguk〉 and 〈Myth of Samseog〉 who came across the sea leads to the cultural development.

Finally, the symbolic meaning of sea is death and exile at the same time resurrection and rebirth. The protagonists of 〈Myth of Talhea〉, 〈Sondang bonpuri〉, 〈Chilseong bonpuri〉 and 〈Simcheong muga〉 die by moving into the sea while they are born again with the divine presence.

Key Words myth, sea, mythical space, Yonggung, cultural exchange, death and rebirth

논문투고일 : 2012. 10. 23
심사완료일 : 2012. 11. 28
게재확정일 : 2012. 12. 02